



Ambassador of Czech Republic, H.E. Jaroslav Olsha Jr., interviewed by Mr. Kwang Yul Shin, (President of ICFW & i-msn)

INTERVIEW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야로슬라브
올샤 주니어 대사를 만나다

H.E. Jaroslav Olsha Jr.,
Ambassador of Czech Republic
to Korea, was interviewed at the
Embassy of Czech, Seoul

we should have open mind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should have various experience.

다양한 경험을 갖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사하동 체코대사관에서 야로슬라브 올샤 대사를 만났다. 한국에서 생활한지는 3년 정도 되었으며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으나 한국에 온 후에는 한국사회의 치안유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 묻자 서울에서 많은 국제 문화 행사 개최에 놀라움을 표하며 서울은 국제 전시회, 음악, 예술 분야 특히 모스크바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도시라고 했다.

I meet Ambassador Jaroslav Olsha Jr. at Czech Embassy in Saha-dong, Jongno-Gu, Seoul on November 10. He has lived in Korea for 3 years and had known about Korea a few, but He estimated Korea's maintaining of public peace since he got to Korea. When I asked him for impression of Korea, he answered he had

astonished by many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held in Seoul, and we could enjoy international exhibition, music, art, especially culture from Moscow, that's why Seoul is new international city.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코인은 약 100여명 정도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학생들로 그중 불교생들이 15~2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 여성 또는 남성과 결혼한 부부는 약 15-24커플 내외라고 한다. 또한 체코에는 약 2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대부분 체류하고 있으며 매년 5~10% 한국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뿐 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일하는 소그룹의 단체들이 프라하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He also said "Czech people living in Korea are

about 100 and most of them is student studying abroad. 15 ~ 20 are Buddhist and 15 ~ 24 got married Korean men or women. Also, Most of Korean people living in Czech lives in Praha and the number of them has increased every year. Not only major companies but also small organizations working for multicultural family have office in Praha."

다양한 경험을 갖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 양국 간에 더 많은 여행관광객을 통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다. 여행관광객으로서 서로의 다문화 사회발전에 일조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천과 프라하 직항도 바람직 할 것이라 전했다.

He mentioned we needed international exchange through more tourist between Korea and Czech,

so we should have open mind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should have various experience.

또한 「제대로 된 시체답게 행동해」라는 SF 평론작품의 작가이며, 과학 소설평론가이기도 한 대사에 문학에 대한 가르침이 가정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하자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경험과 흥미를 갖게 되며,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의미와 뜻이 달라진다." 이는 즉, 문학을 배우는 것은 결국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I asked him, who is the author of 「Act like proper corpse」 that is SF noble and SF critic, for how teaching about literature affect home education. He said "You have experience and interesting that is something different by reading a book. Meaning is changed by what you interpret. In other words, learning literature means becoming a person who can decide on important thing of society.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학의 행사는 번역과 해석으로 표현되며 그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을 결정 내리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In addition, event for learning literature is expressed a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people who are doing these works are people who decide on whatever." It means learning literature means becoming a person who can decide on important thing.

마지막으로 대사는 "한국은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 물론 체코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은 적어도 한국이 무엇을 위하여 향해 나아가는지에 관해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Finally, ambassador said "Korea has a limit knowledge. Czech does, too. The important thing is Korean people should have knowledge about what they are seeking."

Interviewed by, Mr. Kwang Yul Shin,
President of ICFW & i-msn

□ 지난 8일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체코 시 낭송의 밤' 행사에서 주한 체코 대사관야로슬라브 올샤 주니어 대사와 함께 ICFW&PPCWC 신광열 대표와 국제미스다문화여성선발대회에서 2위를 수상한 체코대표 이바나스뮈트나양

Kwang Yul Shin, president of ICFW & i-msn, Jaroslav Olsha Jr., the Czech Ambassador to Korea, and IVANA S'MUTNA, who ranked 2nd at International Miss Multicultural Contest, at 'night of Korea-Czech poet reciting' held by Korea Foundation on November 8th 2011.

